

고흥에 항공기 성능시험장 들어선다

나로도에 2017년까지 '국가 비행종합시험장' 건립 길이 1800m 활주로·통제실·계측장비 등 갖춰

우주·항공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 고흥에 항공기 성능 시험장이 들어선다. 나로도 방사 성공으로 우주·항공 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고흥에 항공기를 시험할 수 있는 인프라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순히 로켓을 발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항공기를 제작하고,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우주 항공시설이 있는 고흥 나로도 인근에 2017년까지 '국가

비행종합시험장'을 세울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비행종합시험장 기본설계를 위한 기획연구를 시작해 중소형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비행시험장을 201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1800m 길이 활주로와 통제실, 비행성능 계측장비 등을 갖출 예정이다. 이 시설에서는 항공기 이착륙 시험, 운용 함께 성능시험, 엔진 등 정밀부품 성능시험,

소음도 측정, 유해 전자파 점검, 기체 결빙 방지시험 등 항공기 안전·성능과 관련 있는 각종 시험을 종합적으로 한다. 국내에는 항공기 성능시험 전용 비행장이 없어 함발잠비 성능시험 등을 외국에 의존했었다. 비행시험장이 생기면 2022년까지 레이저형 경량항공기, 무인기, 비즈니스 제트기 등을 차례로 개발한다는 정부의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우주·항공 분야 선진화기 위한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속에 고흥이 관련 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고흥은 경남 사천 등지와 우주·항공 분야 경쟁을 벌이고 있고, 대전 등지도 풍부

한 연구기관을 앞세워 관련 산업에 뛰어 들었다. 앞서 정부는 고흥과학로켓센터(2억원), 나로우주센터 2단계 사업(201억원),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800억원),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20억원), 국립청소년우주체험센터 정비구축사업(3억5000만원), 고흥우주랜드 조성사업(9억6000만원) 등 6개 분야 1036억원의 국비를 확정했다. 또 대통령공약사항인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한 '우주테마파크 조성'과 '우주항공부품 시험평가 센터 건립'도 국가계획에 반영돼 올해부터 정부에서 기획연구 수행 후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새정치연합 오늘 광주·전남 발기인대회

새정치연합(가칭)은 28일 광주와 나주에서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다. 새정치연합 광주시당 창당준비단은 이날 오전 11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갖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대회에서는 광주시당 창당을 진두지휘할 공동위원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새정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이날 안철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운영위원장이 참석해 새정치로의 국민화합을 강조할 예정이며, 영남지역 새정치 지지자들을 대표해 사공정규 중앙운영위원도 함께 자리한다. 창당 발기인들은 이날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모든 국민

의 통합정당으로서, 건강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개방적이고 깨끗한 민주정당이 될 것"이라는 요지의 창당 발기취지문에 뜻을 모으고 '새정치인의 7대 약속' 순수를 선언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 전남도당 창당준비단은 이날 오후 2시 나주 다목적체육관에서 도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회에는 전직 법조계 인사 등 다양한 직능직군의 도민들이 대거 참여, 새정치연합이 약속과 신뢰를 지켜나가는 국민정당의 참모습을 실현할 것을 약속할 예정이다. 창당 발기인은 전남지역 22개 시군에서 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임을위한...' 기념곡 지정 광주시의원 7명 총리에 성명서 전달

광주시의회 조호권 의장과 나중천 부의장 등 시의원 7명은 27일 국무총리실과 국가보훈처를 방문해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을 촉구하고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날 국무총리실 등 기관 방문에는 박인화 교육위원장, 김영남·이은방·정희곤·전주연 의원이 참석했다. 조호권 의장 등 광주시의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임을 위한 행진곡은 80년대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언제나 울려 퍼졌던 민중·민주운동의 상징적인 노래로, 탄생 배경부터 5·18민주화운동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함께 부르는 것은 자국의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국회의결을 무시하고 기념곡 지정을 회피하며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며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3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반쪽자리가 아닌 온전한 행사로 치르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국민 모두가 부를 수 있도록 공식기념곡 지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조호권 의장 등 광주시의원 7명이 27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왼쪽 두번째부터 이은방·박인화·조호권·나중천·전주연·정희곤·김영남 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헌재, 진보당 헌법소원 기각

"정당해산심판 민소법 준용"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됐다. 이번 기각 결정은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헌재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진보당이 헌재 심판 절차와 관련해 헌재법 40조 1항과 5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법 40조 1항은 현재의 심판절차와 관련,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며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며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57조는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재가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정당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민소법 준용조항은 불충분한 절차진행규정을 보완해 심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소법을 준용

하도록 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민소법을 준용하도록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처분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 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중하고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며 종국결정 시까지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기본권 제한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달빛동맹' 속도낸다

3년차 맞아... 10대 과제 확정 강시장 2·28운동 기념식 참석

영·호남 대표도시인 광주시에 대구시 두 도시가 맺은 '달빛동맹'이 3년 차를 맞아 가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구시와 '달빛야구제전 개최', '민주항쟁 정신 고취를 위한 동서 화합', '여성단체 교류 활성화' 등 올해 교류협력사업으로 5개 분야 10대 과제 23개 사업을 확정하는 등 공동발전의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추진했던 협력사업 중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치과산업벨트 구축'과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2017 WBC 공동 유치' 과제는 제외됐다. 두 도시는 또 도심 근공항 초기 이점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안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두 도시는 특히 대구~광주 내륙철도(191km·4조8987억원) 건설사업의 사전 조사 용역비를 내년 국비에 반영하고, 내

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16~2025)' 타당성 검토 시 전반기 착수 사업에 반영되도록 힘을 합치기로 했다. 또 3D 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광주3D 상용화지원센터와 대구 3D기술지원센터를 오는 3월 착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립합창단 연합 공연을 추진하고, 공동제작 및 합동공연 작품으로 11월 '신춘향전'을 준비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머물면서 작품 활동을 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도 마련해 올 10월 광주빛고를 아트스페이스와 대구미술관 창작스튜디오 및 가창 창작스튜디오에서 처음 실시한다. 한편, 강은태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지역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28일 대구에서 열리는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 조호권 광주시의회 의장과 오재일 5·18기념재단이사를 비롯한 5·18관련 지역 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김범일 대구시장도 지난해 광주 5·18 민주운동 기념식에 영남지역 광역단체장으로는 처음 참석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진보당 오병윤 의원 의정보고회 "정치혁신 밀알"

통합진보당 오병윤(광주 서구 을) 의원은 27일 오후 7시 영주체육관 내 국민생활관에서 '2014년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불통과 무능의 정치를 걷어내고 정치혁신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주제로 진행된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오 의원은 2013년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광주 국비지원예산이 역대 최대규모인 3조원을 확보하고, 호남지역 예산도 확보하는데 맹활약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특별교부세 7억을 또다시 확보했고,

광주시 특별교부금 5억을 확보해 총 19억원이 서구지역 주민환경개선사업에 쓰여지고 있는 등 그동안의 예산확보현황을 밝혔다. 이밖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 해외건설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경로당 냉난방비 확보 등의 의정활동 소개와 5·18 역사교육, 호남비하에 맞선 노력 등도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매매"

15평(실 9평) 1세대

- 12층, 무등산 쪽, 주거겸 사무실
- 시세/감정가 4,500만원
- 급매가 3,500만원

38평(실 22평) 1세대

- 2층, 하천 쪽, 사무실 전용
- 시세/감정가 1억 5,000만원
- 급매가 1억원

77평(실 46평) 1세대

- 20층, 최상층, 전망 좋음, 사무실 전용, 울수리
- 시세/분양가 3억원
- 급매가 2억 5,000만원

29평(실 18평) 1세대

- 10층, 하천 쪽, 주거겸 사무실
- 시세/분양가 1억원
- 급매가 6,500만원

53평(실 33평) 2세대

- 13,19층, 양동/하천쪽 코너 전망 좋음
- 주거 겸 사무실, 울수리
- 시세/분양가 2억원
- 급매가 1억 5000만원(13층) 1억2000만원(19층)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문의 010-4667-9300

- 관리비 평당 7,000원, 대형주차장 완비
- 개별 냉/난방 시설

경매투자

- ▶ 특수비법 배우실 분!
- ▶ 단독/공동투자 하실 분!
- ▶ 경매 낙찰 물건에 돈 빌려 주실 분!
-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 ▶ 특수물건만 취급 단, 상담후 분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